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현안보고 ('17.12.18)

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

2017. 12. 18

산업통상자원부

목 차

Ⅰ. 추진배경 ····· 1

Ⅱ. 우리 산업의 현 주소 ····· 2

Ⅲ. 글로벌 경쟁 패러다임 변화 ····· 4

Ⅳ. 종합 평가 ····· 6

Ⅴ. 새 정부의 산업정책 비전과 전략 ····· 7

1. [산업]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 ····· 8

2. [기업] 미래 지향적 상생협력 강화 ····· 12

3. [지역] 혁신성장 지역거점 육성 ····· 15

Ⅵ. 향후 추진일정 ····· 17

Ⅰ. 추진배경

◇ 기존 성장전략이 한계에 직면하며, 산업경쟁력은 약화

○ 4차 산업혁명 도래, 중국 성장전략 변화 등 **글로벌 경쟁 패러다임 변화** 속에 후발 경쟁국의 **빠른 추격**, 선진국과는 **격차 확대**

○ 과거의 성공 방정식인 대기업 중심의 **성장전략**, 수출·투자 중심의 **양적 투입성장 전략**은 이제 **한계**에 봉착

- **4차 산업혁명**에 대응한 **새로운 신산업 창출도 지연**

◇ 근본적 해결은 지연되는 가운데, 산업정책의 역할이 재조명

○ 글로벌 금융위기는 조기에 극복하였으나, 산업체질 개선을 위한 **근본적 혁신 노력**은 오히려 **지연**

- 수입규제 확산 등 **통상 이슈**와 **구조조정** 등 당면 현안도 누적

○ 또한, 경제성장 과실이 **일부에 집중**되며, **낙수효과는 소멸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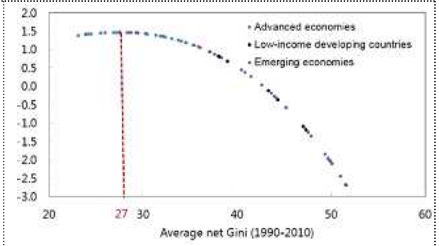
- 중소·중견기업은 **생존의 위협**에 직면하고,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**양질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**은 어려워지는 상황

◇ 사람 중심의 혁신성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시대적 요구

○ 산업 혁신에 더해 **일자리·소득**까지 고려한 **성장 전략이 필요**

▸ **IMF "불평등과 경제발전의 새로운 관계"** ('17.5월)

→ "지니계수 0.27 이상의 **소득 불평등**('inequality overhang')은 **경제성장에 부정적** 영향"



Ⅱ. 우리 산업의 현 주소

◇ 주력산업 약화, 신산업 창출 지연 속에 산업 경쟁력이 약화

○ 최근 **수출 회복세**에도 불구하고, 주력산업의 정체 속에 **신산업 창출은 지연**되는 등 **산업 경쟁력 약화** 우려

* WEF 국가경쟁력 순위 : ('07) 11위 → ('10) 22위 → ('13) 25위 → ('17) 26위
** 총수출 중 13대 주력품목 비중 : ('06년) 83.1% → ('11년) 82.1% → ('16년) 77.9%

< 수출 증가율 추이 >



< 주요 주력산업 시장 점유율 >



○ **반도체·디스플레이** 등은 수출 확대에도 후발국 추격* 심화, **해외 생산 확대** 등에 따라 국내 일자리 창출 등 **낙수효과는 제한적**

* LCD 시장 점유율 ('13 → '17.상 %) (韓) 38.7 → 33.2 (中) 11.5 → 24.6

- **조선·철강·자동차** 등은 **구조조정, 통상임금** 등 현안문제 지속

○ 한편, 철강·세탁기·태양광 패널 등 **주력 수출제품**에 대한 **수입규제** 강화 등 **보호 무역주의***를 통한 견제도 심화

* 對韓 수입규제(건) : ('14년) 166 → ('15년) 175 → ('16년) 184 → ('17.9) 190

◇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대기업 중심의 취약한 기업 생태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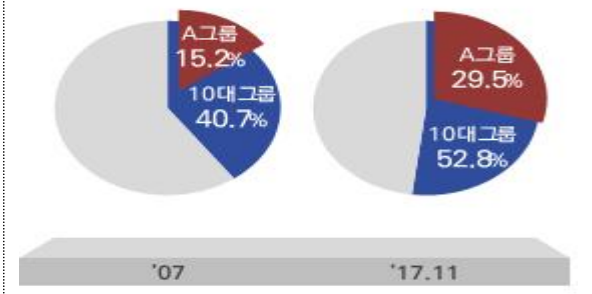
○ 경제성장 과실이 **일부 대기업에 집중**('호리병 구조')되며, **글로벌 경쟁력**을 갖춘 중소·중견기업 성장이 부진

* A전자(반도체, 3분기 공시실적) : (매출) 19.9조(전년비 +51%), (영업이익) 9.96조(+6.6%)

- 평평한 운동장에서 **중소·중견기업**을 중심으로 **생산성**을 증진시켜 **'성장-일자리-소득'의 국민경제 선순환 구조 복원**이 시급

○ 특히, **중소·중견기업**은 대기업과의 **격차가 확대**되며 혁신성장을 위한 역량 확보 곤란

< 10대 그룹 시가총액 비중 추이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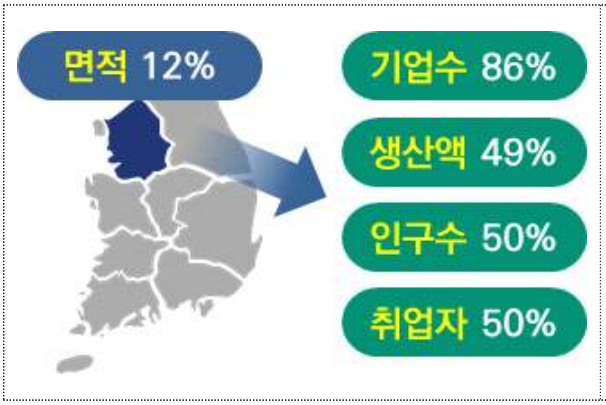
< 대·중소기업간 격차 >



◇ 불균형 성장과 특정산업 의존 등 지역 성장격차 심화

○ 全 **국토 면적의 10% 내외**(11.8%)인 **수도권**에 **인구, 기업, 생산·일자리** 등 주요 역량과 자원이 집중

< 수도권 집중도 >



< 지역별 평균임금 수준 >



○ 조선 산업 등 지역에 밀집된 **주력산업 침체***, 지역 소재 **기업의 수도권·해외 이전**** 등 지역산업 위기 우려

* 조선 밀집 5개 시도 고용 증가율('17.5, 전년동기비) : (전국) 2.6%, (5개 시도) △0.2%

** (예) S社(광주, 구미) : 생산라인 베트남 등 해외 이전
D社(창원) / S社(거제) / H社(창원) 등 : R&D 연구인력 축소.수도권 이전

Ⅲ. 글로벌 경쟁 패러다임의 변화

◇ 우리 산업을 둘러싼 **글로벌 패러다임의 구조적 변화**가 빠르게 진전

☞ 새로운 **도전**에 대한 **'적극적 응전'**(應戰)이 필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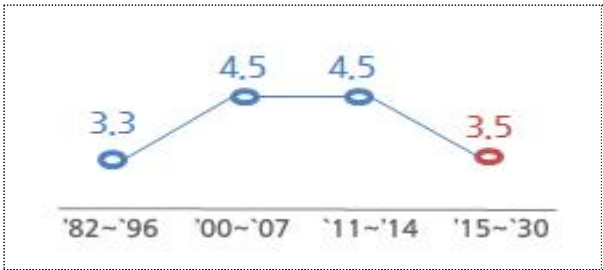
◇ [Global] 글로벌 저성장 지속 및 4차 산업혁명 가속화

○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, **低성장**(New Normal) **구조**가 지속

- 선진국은 물론 신흥 경제권의 **회복이 여전히 미흡**한 가운데, 기존 자유무역 중심의 **국제 교역질서에 균열** 발생
- 생산·수출 등에서 **자국시장 중심의 보호 무역주의**가 빠르게 확산

‣ **美 트럼프 대통령** : **America First** 및 **Buy America** 원칙 천명 ('17.1월)

< 세계 경제성장률 (IMF, OECD, %) >



< 세계 교역규모 증가율 (WB, %) >



○ **4차 산업혁명**에 따라 ①**산업 영역 파괴**, ②**제품·서비스 융합**, ③**온-오프라인 경계**가 해체되며 각국은 **플랫폼 선점 경쟁**에 돌입

* △IBM 왓슨 → 인공지능 의사, △아마존 Go → 무인매장 등

- IoT, 빅데이터, AI 등 **파괴적 혁신기술**을 바탕으로 **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**로 전기자율차, 에너지신산업 등 **미래 신산업** 등장
- 이를 통해, 美·獨 등 **선진국**은 후발국과의 **경쟁 격차 확대** 주력

◇ (Region) 중국 성장전략 전환 등 역내 분업구조의 재배치

○ **역내국의 성장전략 전환**에 따라 **생산·교역관계가 변화**

- 특히, 중국의 홍색 공급망(紅色 供給網) 강화 등 **한·중·일 분업구조가 균열**

* 「제13차 5개년 규획」('16~'20년), 「중국 제조 2025」 등 세계 최고수준의 제조강국 도약 추진

< 중국 가공무역 비중 (%) >



○ 아울러, 베트남 등 **ASEAN***, **인도** 등 **참여자 재편**이 빠르게 진행되며, 역내 생산거점도 **'동북아 → 동아시아'**로 확대

* (예) ASEAN 자동차 내수시장 : ('16년) 300만대 → ('20년) 371만대 (+24%)

◇ (State) 청년실업 · 고령화 등 산업활력의 구조적 저하 우려

○ 높은 **청년실업**, 베이비붐 세대 **조기 퇴직** 및 **급속한 고령화**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**경제 성장률 저하** 우려

* 경제 성장률 전망 (%, KDI) : ('17) 3.0 → ('22) 2.6 → ('26) 2.2 → ('30) 1.8

< 청년 실업률 (통계청, %) >



< 초고령사회 진입 소요기간 (한은)>



◇ (Society) 삶의 질과 안전에 대한 높아진 관심

○ 그간 양적성장에 집중하여 **국민 삶의 질 개선은 다소 소홀**

- 친환경, 일자리, 상생협력등에 대한 **산업정책적 고민** 필요성 부각

Ⅳ. 종합 평가

□ 혁신성장을 위한 새로운 「기회의 창(窓)」이 열리는 중

* "**지금이 적극적 구조개혁을 위한 적기**" (IMF, '17.11월)

○ 최근 국내·외 전반에 걸친 수출 등 **실물경제 회복세**는 **비용을 최소화**하면서 과감한 **혁신성장**을 위한 **긍정적 기회**

□ 우리만의 강점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

○ 중국은 물론, 미국·독일·일본 등 선진국도 **강력한 산업정책**을 통해 **새로운 기회 선점**에 나서고 있는 상황 ("산업정책의 부활")

> ‣ **스티글리츠 교수**(J. Stiglitz)는 적극적 노동정책, 중소기업 육성 등을 위한 **정부 개입과 산업정책 부활**을 주장 (「The Rejuvenation of Industrial Policy」, 2015)

○ **강력한 제조업**을 중심으로 한 **우리의 강점**을 기반으로 구조적 문제점과 시대적 요구 해결을 위한 **새로운 산업정책**이 필요

* 제조업경쟁력지수(UNIDO, '16년) : 세계 3위 / ICT 발전지수(ITU, '17년) : 세계 2위

□ 과감한 정책 재설계로 성장 톱니바퀴(산업→일자리→소득) 재가동

○ ①**산업혁신**(주력산업 + 신산업), ②**기업혁신**(대기업 + 중소 + 중견기업), ③**지역혁신**(수도권 + 非수도권) 등 **「3대 분야 혁신」**이 필요

< 새로운 산업정책 추진기조 >

구 분	기존 산업정책	새로운 산업정책
산 업	‣ 특정산업 의존	‣ 주력·신산업이 **함께 성장**
기 업	‣ 대기업 중심	‣ 대·중견·중소기업이 **상생 발전**
지 역	‣ 수도권 편중	‣ 지방·수도권이 **균형 발전**

Ⅴ. 새 정부의 산업정책 비전과 전략

비전

함께 성장하는
세계 최고의 혁신국가 도약

목표

◇ 미래형 산업구조 혁신을 통한 「혁신 경제」

◇ 중소·중견기업과 국민이 바라는 「포용적 성장」

- '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30만개+α 창출 -

3대 전략 + 6대 정책과제

정책과제

F4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	①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 추진 ② 주력산업 성장활력 회복
F5 미래 지향적 상생협력 강화	③ 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주체로 육성 ④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업종별 상생협력
F6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거점 육성	⑤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⑥ 지역의 혁신역량 확충 지원

1 [산업혁신] 신산업 창출 및 주력산업 고도화

(1) 선도 프로젝트 중심으로 신산업 창출

◇ A ICBM을 접목한 '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' 우선 착수

* AI, IoT, Cloud, Big Data, Mobility

○ **(방향) 4차 산업혁명**(인공지능과 빅데이터, 미래형 모빌리티 등), **에너지전환, 고령화 사회** 등에 대응한 **'신산업 선도 프로젝트'** 추진

- 제조·ICT·에너지 등 **우리의 강점**을 기반으로 **대·중견·중소기업 협업**과 새로운 **플레이어 참여**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

○ (분야) 전기·자율주행차 등 **성장 가능성**과 **국민 체감이 높은 5대 선도 프로젝트**를 우선 추진하고, 후속 프로젝트도 지속 발굴

<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 (예시) >

분 야	주요 내용
(미래 모빌리티 사회) 전기·자율주행차	‣ '20년 **고속도로 자율주행** ‣ '22년 **전기차 보급 35만대**
(초연결 사회) IoT 가전	‣ 빅데이터, 인공지능 연계 **IoT 가전 기술 개발** ‣ 가전, 건설, 통신, 자동차, 의료 등 **융합 플랫폼 구축**
(에너지 전환) 에너지신산업	‣ **분산형 발전확대**를 계기로 **에너지신산업 창출** ‣ 첨단 전력 인프라 구축, 분산전원 연관 산업 육성 등
(수명 연장과 고령화) 바이오·헬스	‣ **빅데이터+AI 기반 신약 및 의료기기·서비스** 개발 ‣ AI 기반 스마트헬스케어 핵심기술 개발
(4차 산업혁명 두뇌와 눈) 반도체·디스플레이	‣ 후발국 **격차 5년 이상 확보** (글로벌 No.1) ‣ 대규모 적기투자 및 차세대 기술확보 병행 추진 (차세대 메모리·파워반도체,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)

- 선도 프로젝트별 특성을 고려하여, **핵심기술 개발, 실증·사업화, 상생협력** 등 맞춤형 지원 패키지 마련 → **조기 성과 창출** 유도

◇ 핵심기술 · 인재 · 금융 등 혁신성장 역량 확충 주력

○ (R&D) 5대 선도 프로젝트 분야 **원천기술 확보** 지원

* (예) 자율주행차 9대 핵심부품기술 개발 : '17~'21년 1,445억원
IoT 가전 핵심기술 개발 : '18~'22년 120억원 등

- 기업의 **시장진입 촉진**을 위해, 에너지신산업 등 **실증투자 확대**

* 에너지실증 투자확대(억원) : ('16년) 748 → ('17년) 1,000 → ('18년) 1,200

- 전략적으로 필요한 **원천기술 확보** 및 선순환적 연구기반 조성 추진

○ (규제) 국내 기업 대상으로 **현장 규제애로**를 발굴하여, **과감한 네거티브 규제 개선** 추진

* '네거티브 규제개선 T/F'(국조실)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 추진

- 융합 신제품·서비스의 안전성 등 확인 및 조기 시장창출을 유도하는 **실증 규제특례** 및 **임시허가제** 신설 추진 (「산업융합촉진법」 개정)

○ (인재) **중·장기 인력수급 전망**을 통해 5대 선도 프로젝트 중심으로 신산업 분야 **석·박사급 혁신인재** 육성 추진 (6,000명, ~'22년)

* 지능형반도체, 미래형자동차,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, 첨단센서, 임베디드 SW 등

○ (금융) 자율자동차, IoT가전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**3,000억원 규모**의 **민·관 공동 펀드** 조성 (~'18년)

- **우수한 기술력을 보유**했지만 자금조달이 어려운 신산업 분야 기업에 기술보증을 활용하여, **사업화 자금 저리융자 지원**

* '18년 2,00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 후, '19년 정부예산을 활용하여 규모 확대 추진

○ (표준) 중소·중견기업이 **체계적으로 신산업 분야**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 등 **미래 신산업 분야 표준 로드맵*** 마련

* 18개 분야 209개 핵심기술 379개 중점 표준화 과제 제시 ('17.12월)

- **'신속표준제' 도입***, **표준 종합정보망** 구축 등도 병행

* 표준이 없는 경우, 신기술 표준을 신속 제정하는 Standard on Demand 제도 도입

[2] 주력산업의 성장활력 회복

◇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산업 활력 강화

○ (**투자촉진**) **투자애로 해소** 차원의 접근을 **지양**하고, 산업정책 차원에서 중요한 **민간의 전략투자 프로젝트** 조기 이행 지원을 강화

- 산업부 차원의 「**실물경제 투자지원 TF**(가칭)」을 구성하여 민간의 **대규모 투자 프로젝트***에 대해 **집중 관리** 추진

* 업종별 간담회('17.8~9월)를 통해 114.5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발굴

- 개별부처 차원에서 **해결하기 어려운 규제**는 범정부 「**투자촉진 TF***」 중심으로 **입지·도로·전력·용수 등 맞춤형 지원** 강화

* 기재·국토·환경부 등 관련부처, 한전·수공·도공 등 유관기관, 지자체 및 투자기업 등

○ (**제도마련**)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경자구역·외투지역 등의 국내·외기업 차별적 지원제도를 개선하고, **국내투자 활성화 지원방안** 마련

* 세부 개선방안은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 추진

- **국내 투자기업 지원근거** 마련 및 지역투자 촉진정책의 체계적·안정적 추진을 위해 「**지역투자촉진법**(가칭)」 제정 추진

◇ 산업 관점의 선제적 구조혁신 노력 강화

○ (**구조조정**) **재무적** 관점의 **구조조정**을 넘어, **산업과 금융 측면**을 **균형 있게** 고려하는 **구조혁신** 강화

* 고용·지역경제 등 국민경제 영향이 크거나, 산업전반이 구조적 부진에 직면한 경우 등

- 업종별로 차별화된 **상시 경쟁력 분석체계 구축, 금융당국과의 협의체 구성** 등을 통해, 산업구조의 선제적 혁신노력 강화

* 산업진단 시스템 구축 → 정기 점검 → 산업 차원의 선제적 경쟁력 강화 추진

- 조선 등 **주력산업**의 급격한 **위축**(한국판 Rust belt)에 대한 **선제적 위기대응** 및 **체질개선** 추진

◇ 통상 이슈에 대한 전략적 대응 강화

○ (**시장진출**) '**동**(美·日)-**서**(中·歐) **교역 축**' 외에도 유라시아-아세안-인도 등 '**J-커브 번영축**'을 중심으로 **전략적 시장 진출** 강화

< (예) 新북방·新남방 주요 협력분야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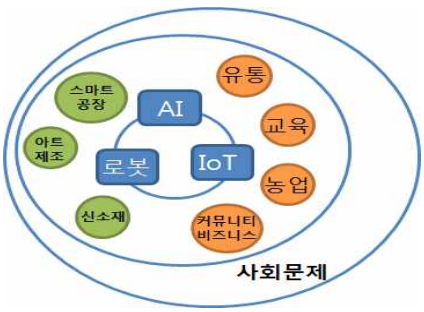
구 분	주 요 내 용
新북방	‣ (극동 러시아, 중국) 9-Bridge, 중·몽·러 연계사업 ‣ (중앙아시아) 석유화학, 인프라, ICT, 보건의료 ‣ (서부 러시아, 우크라이나) 자동차, ICT, 항공 등
新남방	‣ (인도) 스마트 시티, 자동차 ‣ (베트남) 소재·부품, 에너지 등 ‣ (인도네시아) 자동차, 철강, 에너지 협력 등

○ (**수입규제**) 반덤핑, 상계관세, 세이프가드 등에 대해서는 **업계, 우호세력 연계** 및 **국제공조 모색** 등을 통해 **적극 대응**

- 아울러, **불합리한 조치**에 대해서는 WTO 제소 등 적극 추진

◇ IoT·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주력산업의 서비스화 촉진

○ (**제조서비스**) **생활밀접** 분야 중심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* **제조-서비스 융합 비즈니스** 창출



* GE '제품 서비스' 사업 실적(비중) :
'97년 97억불(20.1%) → '14년 464억불(42.2%)

- 對국민 공개 경쟁방식 등을 거쳐 **국민 생활밀착 애로**와 **다양한 현장 아이디어를 접목**하여 新부가가치 창출

2 [기업혁신] 미래 지향적인 상생협력 강화

(1) 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 주체로 육성 (중견기업 비전 2280)

※「중견기업 비전 2280」: 매출 1조원 이상 월드챔프 중견기업 80개 육성 ('15년, 34개)

◇ 획일적 지원을 벗어나 업종별로 차별화된 육성 추진

○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**개별기업 육성에 초점을 둔 분절적 지원**에서 자동차·반도체 등 **산업정책**과 연계한 **체계적 지원**으로 전환

< 주요 업종별 중견기업 육성 추진방향 >

구 분	중점 추진방향
자동차	‣ **전기차·자율차 핵심부품** 개발 중견기업 집중 지원 ‣ 완성차 대기업-중소 협력사 공동 R&D 및 해외 마케팅
반도체·디스플레이	‣ **반도체 장비·소재 패키지** 개발 추진 ‣ 반도체·디스플레이 대기업-소재·장비·부품 중견기업 공동 R&D
바이오·헬스	‣ **글로벌 바이오 스타 프로젝트** 추진 ‣ 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·서비스 창출
석유화학	‣ 중견기업 특성에 맞는 **스페셜티 기업** 육성 (첨단 정밀화학, 플라스틱 필름 등)
섬유·패션	‣ **고기능성 화학섬유 및 산업용 섬유** 중견기업 육성 ‣ 바이어 맞춤형 제품 공동개발 및 기술협력 추진

◇ 중견기업에 특화된 맞춤형 패키지 지원 강화

○ 기업 역량별 **맞춤형 수출·R&D** 지원, **지역거점 기업 육성** 및 **성장 친화적 인프라 조성**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 촉진

구 분	중점 추진방향
글로벌 수출 기업화	‣ 수출역량 단계별로 차별화된 **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** - (초기) 수출 프로젝트 매니저를 매칭해 수출 全단계 밀착 지원 - (내수.전속형)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,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 지원 ‣ 산은·무보 등 **정책자금 지원** 확대 및 他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강화
혁신역량 강화	‣ 新산업 분야 **「월드클래스 300+」** 사업 추진 (중기부 협업) ‣ **「중견기업 혁신성장 펀드」** 조성 추진
지역혁신 생태계 조성	‣ 국가혁신 클러스터 중심으로 **지역 거점 중견기업** 선정.집중 지원 ‣ 취업박람회 등 지역별 채용의 場을 확대해 **지방기업 취업 활성화**
성장 인프라	‣ 이분법적 법령·제도, 현장애로·규제 등 **성장걸림돌 개선** 추진 ‣「중견기업 정책 위원회」를 운영하여 **정책.지원사업간 연계 강화**

[2]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업종별 상생협력 추진

◇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

○ (**자율협력**) '**10대 업종별 상생협의체***'를 구성하고,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**상생협업 모델·프로젝트** 개발·확산 유도

* 업종별 대·중견·중소기업, 협·단체 등으로 자율적으로 구성

< 대-중견-중소기업 협력모델 (예시) >

기술 혁신	경영 혁신	일터 혁신	해외 동반진출
▸ 협력사 공동 R&D (석유화학, 반도체 등) ▸ 제조공정 기술 이전 (조선 등)	▸ 성장펀드 조성 (반도체) ▸ 경영 컨설팅 지원 등	▸ 노동 친화적 공정설계 ▸ 근로환경 전담부서 설치 추진 (업종단체)	▸ 대기업 네트워크 활용 협력사 동반진출 ▸ 해외 전시회 참관 지원 등

◇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적극적 조력자 역할 강화

○ (**환경개선**) **생산현장 고도화**(스마트공장), **공장·산단 환경개선** 및 **근무환경 우수기업 인센티브** 등 추진

* 뿌리기업 공정기술 개발사업 지원 : (현재) 606개社 → (향후) 4,500개社

(사례) 독일 「플랫폼 인더스트리 4.0」 (스마트공장 등 **생산성 향상 전략**)
: 노동조합을 논의에 참여시켜 일자리 축소에 대한 근로자 우려 완화, 노동계 협조 유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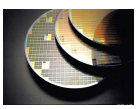
- **업종별·수준별 특성**을 고려하여 **차별화된 스마트공장 지원** 강화

* (업종별) 뿌리 등 16개 업종별 '대표 스마트공장' 구축(30개, ~'22년)
(고도화) 프리미엄 스마트공장 5,000개('22년), SW·제어기기 등 스마트 제조 플랫폼 개발

○ (**이행지원**) 업종별 자율적 상생협력 모델 개발·확산을 위해, **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** 추진 (중기부·동반위 협조)

- **표준 계약서를 업종별 성격**에 맞게 **보완 추진**(공정위 협조)하고, 업종별 협·단체를 통해 보급 촉진

[참 고] 주요 업종별 상생협력 사례

업 종	상생협력 주요 사례
공 통	▸ (정부) 산업혁신운동, 동반성장 투자, 현금·상생결제, 성과공유제 ▸ (기업) 경영자금 지원, 기술.경영 컨설팅, 대기업 네트워크 활용 해외진출, 공동 R&D·비용절감
 자동차	▸ 완성차사-협력사간 공동 기술개발 등 자생적 상생협력모델 확산 ▸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미래차 분야 스타트업 발굴·육성
 철 강	▸ 협력사 현금결제 및 시설투자.운영자금.기술 지원 확대 (물품지급 펀드 500억원 조성 → 2차 협력사 현금결제 지원)
 석유화학	▸ 화학물질 등록, 온실가스 저감 등 협력사 부담완화 지원 ▸ 동반성장기금(100억원)으로 협력사 공동 R&D, 해외진출 지원 등 추진
 전 자	▸ 대기업 IoT 플랫폼 → 중소기업에 개방하여 공동으로 IoT 가전을 개발하는「전자 IoT 상생센터」운영 ('22년까지 1,000개사 참여) ▸ 대기업 기술인력, 장비 무상 지원 → 부품 협력사 생산성 향상
 조 선	▸ 조선사-기자재업체 공동 친환경·스마트선박 기자재 실증 프로젝트 추진 (대기오염 물질 저감 등 4개 분야 40개 기자재 성능검증 및 Track Record 확보 지원) ▸ 대형사가 개발한 IoT, 로봇활용 제조공정의 중형·중소 조선사 기술이전
 반도체	▸ 대기업 생산라인을 활용, 중소·중견기업 성능평가·검증 지원 ▸ 대-중소기업 소재·장비 공동개발 등 지원 ▸ 중소·중견기업 전용 반도체 성장펀드(2,000억원) 운용
 디스플레이	▸ 패널업체 퇴직 고급인력 → 장비·소재 협력사 R&D 및 인력교육 (패널업체별 20명 내외)

3 [지역혁신]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 거점 육성

(1)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서 「국가혁신 클러스터」 육성

◇ 기존 인프라와 연계한 대단위 산업 클러스터 구축

○ (**거점조성**) 혁신도시 중심으로 산업단지,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하여 **'국가혁신 클러스터'** 조성

· "혁신도시를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" (VIP, 10.26)

- 국가혁신 클러스터 **법적근거 마련**(「균특법」 개정), **세부요건**(거점간 거리, 면적 등) 확정 등을 거쳐, **시·도별 계획** 마련 ('18)

* 요건(안) : 거리(광역시 : 반경 10km, 도 : 반경 20km), 면적(최대 15km^2)

◇ '국가혁신 클러스터'를 기업이 모여드는 혁신거점으로 육성

○ (**인센티브**) 지역혁신 선도를 위한 **거점기업**(anchor) 유치를 위해, **세제·보조금·지역개발 특례** 등 인센티브 확대 제공

< (예) 국가혁신클러스터 투자 인센티브 >

보조금	R&D / 세제	금 융	규제 특례
· 설비·입지투자 지원비율 우대	· R&D 가점 부여 · 주요 혁신성장 거점 투자 기업에 세제지원 검토	· 모태펀드 지역투자 의무제 도입	· '투자 선도지구' 지정 (혁신클러스터 내)

○ (**혁신기반**) 혁신도시 내 **산·학·연 네트워크**를 구축하고,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**개방형 혁신 연구실**(Open Lab) 조성

○ (**산학협력**) **지역 거점대학-기업-공공기관** 등 연합을 통한 **메가 프로젝트***를 통해, 지역산업 사업화 및 인재양성 선순환 구조 정착

*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혁신 산업에 대한 산학연 공동 R&D 등 실증프로젝트 추진

(2) 지역의 혁신역량 확충 지원

◇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산업단지 혁신

○ (기능) 기존의 **생산거점**에서 **산업거점 클러스터**로 기능 혁신

- **산단 내 산·학·연 네트워크**(MC)를 인근 산단 등 **지역 내로 확대**하고, 참여기업간 **공동 비즈니스 모델*** 확산을 통해 **산업거점 클러스터** 육성

* R&D 위주의 산학연 협력을 넘어 가치사슬 연관 기업간 제품기획-R&D-생산-판매를 공동으로 하는 '조합형 MC 비즈니스' 모델 구축 및 확산

- 산·학융합 촉진을 위한 **'산·학융합지구' 확대** ('22년까지 15개)

○ (분야) 제조업 중심에서 **첨단 융·복합 산업 중심**으로 고도화하기 위해, **「혁신성장 촉진지구」** 신설, 지원 인프라 구축 등 추진

○ (환경) **우수 혁신인재**가 산업단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, 산단환경 개선펀드*와 정부합동공모사업**을 통해 **근로·정주환경 지속 개선**

* 지식산업센터, 기숙사 등을 건립하기 위해 '산단환경개선펀드' 지원
**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어린이집(고용부), 임대주택(국토부) 등을 지속 확충

◇ 지역 밀착형 풀뿌리 성장기반 조성

○ (주체) **사회적경제 기업 육성**을 통해, 지역 공동체 수요 대응 → 지역 일자리 창출·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**풀뿌리 성장 기반** 조성

* 사회적경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완화하여 공공·시장경제 부문을 보완 → '00년 이후 약 1.5만개의 사회적경제 기업(협동조합, 사회적기업, 마을기업 등) 활동

- **시·도별 중점 추진분야**를 선정, 해당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

*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사업 (신규, 98억원) : 사회적경제 기업의 마케팅·디자인·R&D·전시회·투자연계·유통 등 지원

○ (제도)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기업 **밀착형 제도개선 추진**

* (예) 「재생에너지 3020」과 연계하여 지역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→ 시민 참여에 따른 REC 가중치 부여, RPS 대행 제도 마련 등

Ⅵ. 향후 추진일정(안)

□ 「**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**」을 중심으로 **내년 1분기**까지 **업종별·기능별**로 **세부 이행방안**을 마련하여 실질적 성과 창출에 매진

○ 「중견기업 비전 2280」, 「투자유치 지원제도 개선방안」과 함께, 자동차, IoT 가전 등 **분야별 혁신성장 이행방안 수립 추진**

* 조선, 가전, 바이오·헬스, 로봇, 반도체·디스플레이, 철강, 화학, 섬유패션, 자동차

참고 1 주요 업종별 혁신성장 추진방향

◇ 4차 산업혁명, 공급과잉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, 'A ICBM' 등 **혁신기술을 접목**하여 **산업 포트폴리오** 재편

벨류체인	업 종	주요 도전과제
소 재	철강, 화학, 섬유	· 범용상품 위주 산업구조, 글로벌 공급과잉 ·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
부품·장비	반도체, 디플, 기계	· 중국의 대규모 투자로 추격 가속화 · 생산기지 이전, 기술유출 우려 심각
완제품	자동차, 조선, 가전	· 전기차·프리미엄 가전 등 신제품 경쟁 치열 · 높은 생산비용 등 조립 경쟁력 약화

○ **업종별 특성**을 고려하여 **차별화된 고도화 전략** 추진

[소재 산업군] : 고부가 · 고기능 · 첨단 소재 전환 가속화

As-Is	재편 방향(~'22년)	To-Be (제품·기술)
철강	○ (고부가) **고부가 경량소재 기술개발** ○ (친환경) **첨단 친환경 제철기술 개발** * 수소환원제철공법, 고효율 전기로 등	· **고부가 철강, 경량소재** * 고기능 경량강재, CO_2 저감형 하이브리드 제철기술
석유화학	○ (첨단화) **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 조성** * 전력·용수 등 인프라 확충 적기 지원 ○ (고부가) **고기능성 화학소재 등 고도화** * 경량·극한환경소재, 고순도 화학물질 등 개발	· **고기능·첨단화학** *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(PPS, 폴리케톤 등), PI 등 산업소재기술
섬유	○ (고부가) **첨단 산업용섬유 세계시장 점유율 10%** * 탄소·슈퍼섬유, 고성능 부직포 등 원천기술·제품개발 ○ (新산업) **ICT기반 스마트·맞춤형 의류 新산업 창출** * 빅데이터 기반 패션산업 육성, 스마트공장 적용	**첨단 산업용 섬유** * 초고강도 탄소섬유 고성능 산업용섬유 소재·제품 기술

[부품·장비 산업군] : 선제적 첨단기술 투자 → 초격차 확보

As-Is	재편 방향(~'22년)	To-Be (제품·기술)
반도체	○ (시스템반도체) **세계시장 점유율 6% 달성** * 미래차 등 低전력·超고속 시스템반도체 집중 개발 ○ (설계) **글로벌 50대 설계기업 5개 육성** ○ (소재·부품·장비) **국산화율 제고** * 1조원 이상 중견기업 2 → 6개 육성	↓2 **파워·시스템 반도체** * SiC 파워반도체 기술, 뉴로모픽 칩 등 초고속 반도체 설계기술
디스플레이	○ (품목전환) **OLED 매출액 비중**(25→50%) * 대규모 OLED 투자프로젝트 인프라 조기구축 지원 ○ (미래대응) **차세대 OLED 핵심기술 조기확보** * OLED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○ (국산화) **장비**(60→75%), **소재**(30→50%) * 디스플레이 매출 3천억 이상 장비기업 3→10개 육성	↓2 **차세대 OLED** * 스트레처블 DP, 유연생산 공정기술 (Roll-to-Roll 방식)
기계·로봇	○ (로봇) **협동로봇 보급 확대, 로봇서비스 제공** ○ (부품) **국산화율 제고** * 3대 핵심부품(구동, 센싱, 제어) R&D 확대	↓2 **협동·서비스 로봇** * 경박단소 기술, 고속.정밀제어 모터등

[완제품 산업군] : 신기술 융합 등을 통한 제품 차별화

As-Is	재편 방향(~'22년)	To-Be (제품·기술)
전자	○ (가전) **지능형 스마트 홈 가전** * 빅데이터.임베디드형AI.첨단센서 R&D, 표준대응 ○ (경쟁력) **프리미엄화 촉진, 플랫폼 개방** * 대기업 IoT 플랫폼 공유, 스마트공장 지원	↓2 **IoT가전·센서** * 인공지능 상황인지, 기기간 자율협업 기술
자동차	○ (미래차) **전기차 35만대 보급,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상용화** ○ (기술.인력) **세계최고 수준 기술·인력 확보** * 9대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국산화	↓2 **전기·자율차** * 배터리 밀도 30% 향상 (230→300wh/kg), 고속도로 자율주행
조선	○ (스마트선박) **자율운항선박 개발·운항 성공** ○ (국산화) **친환경 기자재 국산화율 제고** * 오염저감, 운항효율 향상 등 4개 분야 실증	↓2 **스마트·친환경·고효율 선박** * 자율운항 STEP4 (先 자체제어) 구현

참고 2 주요국 대응 : 산업정책의 부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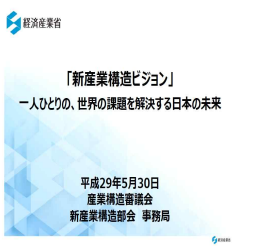
◇ 글로벌 경쟁국은 '**산업정책의 부활**'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

○ 자국의 강점을 바탕으로 리쇼어링, 수입규제 등 전방위적인 **산업 부흥전략**을 통해 **경제 침체**와 **일자리 문제** 해결 추진

* (美)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심사 가이드라인, (中) 삼원계 배터리 기준 강화 등

○ 아울러, 단순히 **산업 경쟁력 강화**에만 그치지 않고,

- **지역경제 활성화, 중소기업 육성, 노동·일자리** 등 경제·사회 전반의 성장 기반을 튼튼하게 만드는 노력도 병행

미국혁신전략	플랫폼인더스트리 4.0	신산업구조비전	중국제조 2025
			

민간 주도의 혁신과 정부의 시장 선점 지원 (America First)

○ **(민간) 글로벌 IT 기업**(구글, 페이스북 등)들이 **플랫폼**을 선점하고, 제조·문화 등 **他 산업과 융합**하면서 창조적 부가가치 창출

○ **(정부) 원천기술 투자, 스타트업 활성화**(「Jobs법」*) 등 선제적 제도 마련, 대규모 실증 등 **선순환 생태계 조성** 추진

* 「Jump Our Business Startups Act」('12.4월) → 신생기업 자금조달 지원

- 또한, 「**America First**」 등 **자국 위주**의 **강력한 통상정책***을 통해 국내 생산, 수출 등 **산업활력 회복**** 유도

* "America First → Buy America & Hire American" (美 트럼프 대통령, '17.1월)

** 美 GDP 증가률(상무부, %) : ('13) 1.67 → ('15) 2.59 → ('16) 1.61 → **('17) 3.0**

강력한 제조 기반을 활용하여 경제체질 개선 주력

○ **(민간)** Siemens, Bosch 등 **민간기업** 주도로 **제조혁신** 추진

○ **(정부)** 범정부 차원의 **산업전략**으로 **'인더스트리 4.0'** 지원

- 최근에는 **중소기업 역량 강화**(「Mittelstand 4.0」), **노동·일자리 대응**(「Arbeiten 4.0」) 등 경제·사회의 **부작용 보완 병행**

「중소기업 4.0」 (Mittelstand 4.0)	· 전국 11개 센터 설치 → 디지털 기술 공유, 실증 등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향상 지원 ('16.8월)
「노동 4.0」 (Arbeiten 4.0)	· 고용 요건·교육 체계·사회보장 시스템 개편 등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일자리 정책 제시 ('17.1월)

기술 강점을 활용하여 정부 주도의 국가혁신 도모

○ **(민간)** 전반적으로 美·獨 등에 비해 **대응이 늦었으나**, AI, IoT, 로봇 등 **첨단 기술력**을 기반으로 **제조현장의 강점 활용** 추진

* 산업용 로봇 출하량 세계1위, 센서 디바이스 세계 M/S 70%, 세계최고 슈퍼컴 개발 역량 보유 등

○ **(정부)** **중견기업 육성**, 고령화, 지역경제 침체 대응 병행 등 **국가·사회 전반의 구조혁신**을 위한 **'Society 5.0'** 추진

시민 참여	· 정보 공유 디지털 플랫폼		시민참여 확대
데이터 공유	· 현장 데이터 수집.활용		지역문제 해결
인프라 개선	· IoT 기반 전력, 수도 개선		고령사회 대비
기업 육성	· 지역 밀착형 기업		일자리.소득 제공

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빠른 추월전략 추진

○ **(민간)** 내수시장을 앞세워 DJI(드론), BYD(전기차), Alibaba(전자상거래), Baidu(검색) 등 **일부 분야**는 **선진국 수준의 경쟁력** 보유

○ **(정부)** **「중국 제조 2025*」**, 「인터넷 플러스」 등 중·장기 산업전략과 강력한 시장 개입을 통해, **세계 최고의 제조강국** 도약 추진

* (~'25년) 獨·日 수준의 제조강국 진입 → ('~45년) 세계 1위 제조강국 (미국 추월)